

(한국의 입학식)

한국에서는 아이가 만 7살이 되고 입학 통지서가 집에 도착하면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낼 준비를 한다. 대부분이 만 7살이지만 생일이 1월이나 2월인 아이는 만으로 6살에 학교에 들어가기도 한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는 유치원에 다니기도하고, 여러가지 학원에서 미술이랑 음악등 여러가지 자신에게 맞는 것을 배우기도 하는 것이 보통. 하지만 자신의 집 사정에 따라 다닐 수 없는 아이도 있다.

한국에서는 자신의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기쁨은 마치 한사람이 성인으로 뉘을 다하는 것때의 느낌에 표현한다면 좋을까. 아뿔튼, 자신이 애써, 정성을 들여 소중하게 기른 아이가 학교에 무언가를 배우고, 또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후에 어떤 인물이 될것일까 하는 기대감도 충분히 담겨있을 것이다.

드디어 입학식날 아이의 손을 잡고, 학교 입학식을 거행하기 위해 간다. 주위 모두가 부모와 함께 학교로 향한다.

먼저 자신의 담임이 될 선생님을 만나 인사한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을 따라 지금부터 학생이 될 아이들이 일렬로 줄을 서서 운동장을 매운다. 주위의 벤치에 부모님들이 앉아 미소가득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응시하고 있다. 또 아이는 지금부터 어떤 것을 배울 것인지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 공부할 것이다 등의 마음가짐으로 두근두근거리기도 한다.

식이 행해지고 여느식도 그러하지만 애국가도 부르기도하고 국기에 대해 대해 경례하기도 한다.

또 교장선생님은 훈화도 빼놓을수없다. 이것으로 한 어린이가 초등학생이 된 것이다.

모두 집으로 돌아와서 오늘의 일을 가족전원이 이야기하기도하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다.

이것으로 아이는 이제 언제나 부모가 돕지 않으면 안되는 아기가 아닌 것이다.

지금부터는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공부도 스스로 하는 것이겠지.

어머니는 아이에게 말씀하신다.

“○○야, 초등학생이 된 것을 정말 축하한다. 지금부터 열심히 하기바란다. 화이팅.” 이라고...